

한우

한우협회 차원의 암소감축 지구노력 전개 회장단 도지회장 연석회의.... 한우산업 안정대책 논의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농가 스스로 지구노력의 일환으로 한우협회 차원의 암소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4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도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한우가격이 조속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우 암소감축에 협회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율적으로 한우 암소를 감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서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으로 5천억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담보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명 등을 통해 이런 협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사회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고 정부에 추가적으로 촉구할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키로 했다.

또한, 공판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 출하예약제로 인해 비수기 입에도 많은 물량이 도축되고 있어 소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과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 문제점을 타개하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4. 22

한돈

한돈 홍보대사로 홍은희 · 갈소원 위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4월 15일 탤런트 홍은희와 아역배우 갈소원을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013년 한돈 홍보를 맡은 홍은희와 갈소원은 TV 및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한돈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TV 광고는 엄마 역할의 홍은희가 한돈의 안심, 등심, 뒷다리살 등 웰빙부위로 요리한 음식을 통해 딸 역할의 갈소원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운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은희는 “평소 가족들과 즐겨 먹는 한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고단백 저지방 부위인 한돈 웰빙부위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갈소원은 “돈까스를 좋아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모 위원장은 “올해 위촉된 한돈 홍보대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이 한돈을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돈 웰빙부위의 우수성에 대해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한돈 소비촉진 광고는 5월 1일부터 TV 및 라디오를 통해 공개된다.

한돈 홍보대사 위촉식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3. 04. 15

양계

대한양계협회-(주)토다이코리아 MOU 체결 세계적 뷔페 레스토랑에 직거래방식 공급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와 세계적인 뷔페 레스토랑인 (주)토다이코리아(회장 김한스형민)가 지난 3월 22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산 양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업무협약 행식은 건강식을 추구하는 토다이코리아와 양계협회에서 인증한 국내 축산농가의 양계산물을 철저히 생산검열 후에 위생적인 경로를 거쳐 일반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토다이는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사업분야로의 사업확장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양계협회와 함께 '청정드림'이라는 통합브랜드를 론칭하여 다양한 양계 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 교환, 품목개발, 홍보 활성화 등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합의했다. 양측은 상품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육우 의무자조금 추진위 경북도위원회 결성

임의자조금으로 운영 중인 육우자조금이 의무자조금 본격 도입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대구 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협회 임직원 및 경북 지역 육우사육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우 의무자조금 추진위 경북도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최현주 육우분과위원장은 “우리 육우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은 필수 조건”이라며 성공적인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지역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만장일치로 도위원장에 추대된 이종복(경북 고령)위원장은 “경북지역의 육우사육농가를 규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의원선거 등 의무자조금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13. 04. 12



“위기극복 의지... 양봉 가치 살리자”

양봉협, 벌꿀소비촉진 선포식·소비안정화 대책 토론회

본격적인 채밀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생산량 급증과 판매량 급감으로 적체돼 있는 벌꿀 재고물량을 해결하기 위한 ‘벌꿀소비촉진 선포식’과 ‘벌꿀 소비안정화 대책 토론회’가 지난 4월 10일 농협안성교육원 상생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규환)가 주최하고 축산신문(회장 윤봉중)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양봉농협이 후원했다. 선포식과 토론회에는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준동 한국양계협회장, 정유환 한국양록협회장, 그리고 전국의 양봉지도자와 양봉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규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양봉현실을 직시하고, 벌꿀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2만여톤이 재고로 남아있다. 올해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협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봉중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양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고 말했으며, 이창호 회장은 축사에서 “6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벌꿀소비촉진 선포식에 이어진 토론회에선 품질인증제의 중요성과 함께 양봉산업 육성 법률 제정,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이 중점 논의됐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13. 04. 15



“봄철 원기충전은 국내산 녹용산물로”

양록협, 명동서 ‘사슴데이’ 기념식…지역별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

4월 3일은 사슴데이. 한국양록협회(회장 정유환)는 사슴데이를 맞아 지난 4월 3일 명동 외환은행 앞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소비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의 기념행사를 대폭 축소했다.



정유환 회장은 “사슴데이는 우리 국내산 녹용과 사슴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 본래의 목적인 만큼 서울에서 진행하는 기념식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및 관련기관단체장들과 전국에서 올라온 양록협회 임원들이 함께 했다.

양록협회는 기념식 후 명동시민들에게 녹용탕 무료 시음행사를 진행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04. 08